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학교 학부모의 요구 분석

백종남*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요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C와 D 지역의 발달장애 특수학교 6개교 260명의 학부모를 참여자로 목적 표집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장애유형이 자폐성장애이거나 뇌성마비인 경우, 장애등급이 높거나 중도인 경우 그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이 높다. (2) 발달장애 학생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사회 참여를 평생교육의 필요 이유로 들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해, 경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취업을, 중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여가 및 취미를 고려하고 있다. (3) 지적장애학생 부모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나, 자폐성장애와 뇌성마비 학생 부모들은 주로 일상생활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취업과 직업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생활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다. (4) 초등학교 과정의 발달장애 학생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 특수학교를, 중·고등학교 전공과 발달장애학생 부모는 직업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호한다. (5) 뇌성마비학생의 부모는 지적장애와 자폐 성장애 학생의 부모보다 평생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주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 평생교육, 특수학교, 학부모, 요구

* 제 1저자: jongnamy@gmail.com

1. 서론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은 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특수하고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속되겠지만, 무엇보다 발달장애가 갖는 기능적 제한성으로 인해 장기간 의존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초기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보이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자녀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에게 각종 특수교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 요구에 응하고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는 발달장애아동이 갖는 특별한 교육 요구에 대해 특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통합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교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이후에도 자녀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학령기 동안 축적해 온 성과 자체로 충분치 않으며, 학령기의 교육적 성과와 연계하여 성인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 긍정적인 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영준, 도명애, 2014; 최옥순, 김영일, 2009; Cronin, Patton, & Wood, 2007).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지속적인 교육 지원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발달장애인법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발달장애인법 제26조).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속행위’로 정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평생교육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 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된 질과 양을 법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에이블 뉴스, 2015. 5. 20일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 시설을 안내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발달

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인력 인증제 등을 마련하는 등 한국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희 등, 20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학교를 기반으로 하거나(송소현 등, 2011), 지역사회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김석진, 2013; 박승희, 2004; 유명해, 2009),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을 활용하는(박혜주, 2006; 임경원, 이유리, 곽승철, 2010) 등 다양한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보고, 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그 당사자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학생 평생교육 요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선행연구(백종남, 2015)에 따르면, 발달장애학생 평생교육 요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 관련 변인보다는 학생 관련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 장애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그들이 현재 안고 있는 인지적·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사회통합에 불리한 조건에서 기인하기도 하겠으나, 개인적 흥미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는 발달장애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고(김경열, 2012)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임경원 등, 2010)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백종남, 2015).

장애인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대다수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고(김성희 등, 2011), 그 이유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제공 기관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임경원 등, 2010; 김정재 등, 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유 역시 제시하고 있다(윤점룡 등, 2010). 장애인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김정재 등(2009)과 김윤태 등(2009)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교육(또는 일상생활교육)과 직업교육을,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및 이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문해교육과 직업교육을, 윤점룡 등(2010)의 연구에서는 취업·직업교육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와 요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에 의한 전반적인 실태와 요구를 밝히고 있고, 발달장애인이 갖는 인지·신체적 제한과 그 공통점에 기초한 요구 및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최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요구를 보고한 김기룡(2014)의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발달장애인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학생 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발달장애는 지적 또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이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백종남, 2011 재인용).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의 주된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적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유의한 제약을 받을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백종남, 2015).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의 장애유형을 발달장애로 정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은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비용부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C 지역과 D 지역에서 지적장애, 정서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 각 1개교 총 6개교를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자녀(학생)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분류		빈도(N)	퍼센트(%)	
성	남	181	69.6	
	여	79	30.4	
학교과정	초등학교	75	28.8	
	중학교	84	32.3	
	고등학교	58	22.3	
	진공과	43	16.5	
자녀 관련 변인	장애유형	지적장애	125	48.1
		자폐성장애	80	30.8
		뇌성마비	55	21.2
장애등급	1등급	164	63.6	
	2등급	76	29.5	
	3등급	18	7.0	
장애정도	간헐적 지원	16	6.8	
	제한적 지원	44	18.6	
	확장적 지원	57	24.2	
	전반적 지원	119	50.4	
관계	아버지	33	12.7	
	어머니	227	87.3	
연령	30이하	55	21.2	
	40대 초반	69	26.5	
	40대 후반	85	32.7	
	50대 이상	47	18.1	
부모 관련 변인	중학교 졸업	14	5.4	
	고등학교 졸업	151	58.1	
	대학교 졸업	87	33.5	
	대학원 졸업	8	3.1	
직업	전업주부	135	51.9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35	13.5	
	자영업, 영업직, 서비스업	56	21.5	
	기타	34	13.1	
합계		260	100.0	

2. 도구

이 연구의 도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김경열, 2012; 김기룡, 2014; 김성희 등, 2013; 김정효, 이정은, 2008; 박승희, 2003, 2004; 박혜주, 2006; 송소현 등, 2011; 오영석, 박원희, 2008; 유명해, 2009; 윤점룡 등, 2010; 이승현, 2014; 홍승희, 2011)를 고찰한 후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1)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 등 발달장애학생 관련 변인, (2) 자녀와의 관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응답자(학부모) 관련 영역, (3) 평생교육 요구 수준, 필요 이유,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 요구 관련 영역.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PASW(v.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발달장애학생의 학생변인에 따라 평생교육 요구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검증(χ^2)을 실시하였으며, 1%와 5% 유의도 수준에서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1. 평생교육 요구 수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와 평생교육 요구 수준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녀의 장애유형($\chi^2= 15.034$, $df= 2$, $p < .01$), 장애등급($\chi^2= 21.772$, $df= 1$, $p < .01$), 장애정도($\chi^2= 38.145$, $df= 2$,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chi^2= 2.344$, $df= 1$, $p > .05$)과 학교과정($\chi^2= 1.688$, $df= 3$, $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발달장애학생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수준 N = 260

	평생교육 요구 수준 (n(%))			χ^2	df	p
	낮은 요구	높은 요구	전체			
성						
남	48 (26.5)	133 (73.5)	181 (100)			
여	14 (17.7)	65 (82.3)	79 (100)	2.344	1	.083
전체	62 (23.8)	198 (76.2)	260 (100)			
학교과정						
초등학교	14 (18.7)	61 (81.3)	75 (100)			
중학교	21 (25.0)	63 (75.0)	84 (100)			
고등학교	16 (27.6)	42 (72.4)	58 (100)	1.688	3	.640
전공과	11 (25.6)	32 (74.4)	43 (100)			
전체	62 (23.8)	198 (76.2)	260 (100)			
장애유형						
지적장애	43 (34.4)	82 (65.6)	125 (100)			
자폐성장애	10 (12.5)	70 (87.5)	80 (100)	15.034**	2	.001
뇌성마비	9 (16.4)	46 (83.6)	55 (100)			
전체	62 (23.8)	198 (76.2)	260 (100)			
장애등급						
1등급	24 (14.6)	140 (85.4)	164 (100)			
2등급이하	38 (40.4)	56 (59.6)	94 (100)	21.772**	1	.000
전체	62 (24.0)	196 (76.0)	258 (100)			
장애정도						
경도	31 (51.7)	29 (48.3)	60 (100)			
중등도	13 (22.8)	44 (77.2)	57 (100)	38.145**	2	.000
중도	12 (10.1)	107 (89.9)	119 (100)			
전체	56 (23.7)	180 (76.3)	236 (100)			

* $p < .05$, ** $p < .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수준 차이는, 자녀의 장애유형이 지적장애인 경우 65.6%, 자폐성장애인 경우 87.5%, 뇌성마비인 경우 83.6%가 각각 평생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냈다. 자녀의 장애등급에 따른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 차이는 1등급의 85.4%, 2등급 이하의 59.6%가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냈다.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른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 차이는, 경도장애 학생 부모의 51.7%가 낮은 요구 수준을 나타냈고, 중등도 장애 학생 부모의 77.2%가 높은 요구수준을 나타냈으며, 중도장애 학생 부모의 89.9%가 높은 요구수준을 나타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은 자녀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장애유형이 자폐성장애이거나 뇌성마비인 경우, 장애등급이 1등급인 경우, 장애정도가 중등도이거나 중도인 경우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평생교육 필요 이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와 평생교육 필요 이유와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녀의 장애등급($\chi^2= 36.486, df 3, p < .01$), 장애정도($\chi^2= 45.805, df 6,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chi^2= 5.790, df 3, p > .05$)과 학교과정($\chi^2= 13.824, df 9, p > .05$), 장애유형($\chi^2= 10.649, df 6,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 N= 255

	평생교육 필요 이유 (n(%))					χ^2	df	p	
	취업	여가 및 취미	사회 참여	돌봄	전체				
성별	남	42 (23.5)	36 (20.1)	89 (49.7)	12 (6.7)	179 (100)	5.790	3	.122
	여	18 (23.7)	7 (9.2)	42 (55.3)	9 (11.8)	76 (100)			
	전체	60 (23.5)	43 (16.9)	131 (51.4)	21 (8.2)	255 (100)			
학교과정	초등학교	15 (20.0)	11 (14.7)	41 (54.7)	8 (10.7)	75 (100)	13.824	9	.129
	중학교	17 (20.2)	13 (15.5)	49 (58.3)	5 (6.0)	84 (100)			
	고등학교	11 (20.0)	10 (18.2)	28 (50.9)	6 (10.9)	55 (100)			
	진공과	17 (41.5)	9 (22.0)	13 (31.7)	2 (4.9)	41 (100)			
	전체	60 (23.5)	43 (16.9)	131 (51.4)	21 (8.2)	255 (100)			
장애유형	지적장애	33 (27.3)	18 (14.9)	57 (47.1)	13 (10.7)	121 (100)	10.649	6	.100
	자폐성장애	14 (17.5)	12 (15.0)	51 (63.8)	3 (3.8)	80 (100)			
	뇌성마비	13 (24.1)	13 (24.1)	23 (42.6)	5 (9.3)	54 (100)			
	전체	60 (23.5)	43 (16.9)	131 (51.4)	21 (8.2)	255 (100)			
장애등급	1등급	25 (15.3)	38 (23.3)	79 (48.5)	21 (12.9)	163 (100)	36.486**	3	.000
	2등급이하	35 (38.9)	5 (5.6)	50 (55.6)	0 (0.0)	90 (100)			
	전체	60 (23.7)	43 (17.0)	129 (51.0)	21 (8.3)	253 (100)			
장애정도	경도	25 (41.7)	0 (0.0)	33 (55.0)	2 (3.3)	60 (100)	45.805**	6	.000
	중등도	11 (19.3)	10 (17.5)	36 (63.2)	0 (0.0)	57 (100)			
	중도	14 (12.1)	27 (23.3)	56 (48.3)	19 (16.4)	116 (100)			
	전체	50 (21.5)	37 (15.9)	125 (53.6)	21 (9.0)	233 (100)			

* $p < .05$, ** $p < .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자녀의 장애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의 장애등급이 1등급인 경우 사회 참여(48.5%), 여가 및 취미(23.3%), 취업(15.3%), 돌봄(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등급 이하인 경우 사회 참여(55.6%), 취업(38.9%), 여가 및 취미(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자녀의 장애정도별 부모의 인식 차이는, 경도인 경우 사회 참여(55.0%), 취업(41.7%)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등도인 경우 사회 참여(63.2%), 취업(19.3%), 여가 및 취미(1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인 경우 사회 참여(48.3%), 여가 및 취미(23.3%), 돌봄(16.4%), 취업(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장애등급이 1등급과 2등급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사회 참여를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그 다음 고려 사항으로는 1등급 자녀를 둔 부모가 여가 및 취미를 고려하는 반면 2등급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발달장애학생의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도·중등도·중도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사회 참여를 가장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고려사항으로는 경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중등도와 중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취업과 여가 및 취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 정도와 지원받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녀의 장애유형($\chi^2=46.814, df=8, p<.01$), 장애등급($\chi^2=65.512, df=4, p<.01$), 장애 정도($\chi^2=67.429, df=8,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chi^2=6.501, df=4, p>.05$)과 학교과정($\chi^2=14.948, df=12,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N= 258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 (n(%))					전체	χ^2	df	p
		경제적 지원	취업 알선 상담	직업교육	일상생활교 육	여가활동				
성	남	30(16.8)	23 (12.8)	58 (32.4)	58 (32.4)	10(5.6)	179(100)	6.501	4	.165
	여	21(26.6)	14 (17.7)	16 (20.3)	24 (30.4)	4(5.1)	79(100)			
	전체	51(19.8)	37 (14.3)	74 (28.7)	82 (31.8)	14(5.4)	258(100)			
학교과정	초등학교	14(18.9)	10 (13.5)	17 (23.0)	27 (36.5)	6(8.1)	74(100)	14.948	12	.244
	중학교	12(14.5)	12 (14.5)	33 (39.8)	23 (27.7)	3(3.6)	83(100)			
	고등학교	12(20.7)	7 (12.1)	13 (22.4)	23 (39.7)	3(5.2)	58(100)			
	전공과 전체	13(30.2)	8 (18.6)	11 (25.6)	9 (20.9)	2(4.7)	43(100)			
장애유형	지적장애	24(19.4)	29 (23.4)	33 (26.6)	31 (25.0)	7(5.6)	124(100)	46.814**	8	.000
	자폐성장애	6(7.5)	6 (7.5)	35 (43.8)	28 (35.0)	5(6.3)	80(100)			
	뇌성마비	21(38.9)	2 (3.7)	6 (11.1)	23 (42.6)	2(3.7)	54(100)			
	전체	51(19.8)	37 (14.3)	74 (28.7)	82 (31.8)	14(5.4)	258(100)			
장애등급	1등급	38(23.5)	7 (4.3)	35 (21.6)	68 (42.0)	14(8.6)	162(100)	65.512**	4	.000
	2등급이하	11(11.7)	30 (31.9)	39 (41.5)	14 (14.9)	0(0.0)	94(100)			
	전체	49(19.1)	37 (14.5)	74 (28.9)	82 (32.0)	14(5.5)	256(100)			
장애정도	경도	7(11.7)	18 (30.0)	31 (51.7)	4 (6.7)	0(0.0)	60(100)	67.429**	8	.000
	중등도	12(21.1)	6 (10.5)	20 (35.1)	19 (33.3)	0(0.0)	57(100)			
	중도	19(16.2)	10 (8.5)	18 (15.4)	56 (47.9)	14(12.0)	117(100)			
	전체	38(16.2)	34 (14.5)	69 (29.5)	79 (33.8)	14(6.0)	234(100)			

* $p<.05$, ** $p<.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지원 받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는, 지적장애 자녀의 부모는 직업교육(26.6%), 일상생활교육(25.0%), 취업 알선 상담(23.4%), 경제적 지원(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 자녀의 부모는 직업교육(43.8%), 일상생활교육(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뇌성마비 자녀의 부모는 일상생활교육(42.6%), 경제적 지원(3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장애등급별 부모의 인식 차이는, 장애등급이 1등급인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생활교육(42.0%), 경제적 지원(23.5%), 직업교육(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등급이 2등급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41.5%), 취업 알선 상담(3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녀의 장애정도별 부모의 인식 차이는, 장애정도가 경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51.7%), 취업 알선 상담(30.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등도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35.1%), 일상생활교육(33.3%), 경제적 지원(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생활교육(47.9%), 경제적 지원(16.2%), 직업교육(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자녀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 일상생활교육, 취업 알선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고,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과 일상생활교육 관련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생활교육과 경제적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등급이 1등급인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생활교육과 경제적 지원, 직업교육 관련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2등급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 상담 관련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정도가 경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 상담 관련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중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생활교육 관련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와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녀의 학교과정($\chi^2= 27.170$, $df= 9$, $p < .01$)과 장애등급($\chi^2= 45.305$, $df= 3$, $p < .01$), 장애정도($\chi^2= 13.324$, $df= 6$, $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chi^2= 4.747$, $df= 3$, $p > .05$)과 장애유형($\chi^2= 7.975$, df

6, $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발달장애인 이용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 N = 255

	평생교육 기관 (n(%))					χ^2	df	p
	특수학교	대학교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	전체			
남	66 (37.3)	9 (5.1)	63 (35.6)	39 (22.0)	177(100)	4.747	3	.191
성 여	27 (34.6)	0 (0.0)	33 (42.3)	18 (23.1)	78(100)			
전체	93 (36.5)	9 (3.5)	96 (37.6)	57 (22.4)	255(100)			
초등학교	31 (42.5)	3 (4.1)	34 (46.6)	5 (6.8)	73(100)	27.170**	9	.001
중학교	36 (43.4)	4 (4.8)	24 (28.9)	19 (22.9)	83(100)			
고등학교	17 (29.3)	2 (3.4)	24 (41.4)	15 (25.9)	58(100)			
전공과	9 (22.0)	0 (0.0)	14 (34.1)	18 (43.9)	41(100)			
전체	93 (36.5)	9 (3.5)	96 (37.6)	57 (22.4)	255(100)			
장 지적장애	37 (30.1)	3 (2.4)	48 (39.0)	35 (28.5)	123(100)	7.975	6	.240
에 자폐성장애	32 (41.0)	4 (5.1)	28 (35.9)	14 (17.9)	78(100)			
유 뇌성마비	24 (44.4)	2 (3.7)	20 (37.0)	8 (14.8)	54(100)			
전체	93 (36.5)	9 (3.5)	96 (37.6)	57 (22.4)	255(100)			
장 1등급	79 (49.7)	0 (0.0)	52 (32.7)	28 (17.6)	159(100)	45.305**	3	.000
에 2등급이하	12 (12.8)	9 (9.6)	44 (46.8)	29 (30.9)	94(100)			
전체	91 (36.0)	9 (3.6)	96 (37.9)	57 (22.5)	253(100)			
장 경도	13 (21.7)	2 (3.3)	21 (35.0)	24 (40.0)	60(100)	13.324*	6	.018
에 중등도	22 (38.6)	2 (3.5)	22 (38.6)	11 (19.3)	57(100)			
정 중도	48 (42.1)	5 (4.4)	40 (35.1)	21 (18.4)	114(100)			
전체	83 (35.9)	9 (3.9)	83 (35.9)	56 (24.2)	231(100)			

* $p < .05$, ** $p < .01$

발달장애인 이용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자녀의 학교과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46.6%), 특수학교(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학교(43.4%),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28.9%), 직업교육 기관(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41.4%), 특수학교(29.3%), 직업교육 기관(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과 학생의 부모는 직업교육기관(43.9%),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3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자녀의 장애등급별 부모의 인식 차이는, 장애등급이 1등급인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학교(49.7%),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3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등급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46.8%), 직업교육 기관(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자녀의 장애정도별 부모의 인식 차이는, 장애정도가 경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기관(40.0%),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등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38.6%)과 특수학교(38.6%)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학교(42.1%),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발달장애인 이용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자녀의 학교과정,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 특수학교를 선호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아지며, 전공과학생을 둔 부모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장애등급이 1등급인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고 있고, 2등급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정도가 경도인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고 있고, 중등도 이상인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5. 평생교육 비용 부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성, 학교과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책임 주체와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의 장애유형($\chi^2 = 24.143$, $df = 6$,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chi^2 = 3.360$, $df = 3$, $p > .05$)과 학교과정($\chi^2 = 9.748$, $df = 9$, $p > .05$), 장애등급($\chi^2 = 2.037$, $df = 3$, $p > .05$), 장애정도($\chi^2 = 6.972$, $df = 6$, $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인식 N= 258

	평생교육 비용 부담 (n(%))					χ^2	df	p	
	당사자 주도 부담	당사자와 정부 동등 분담	정부 주도 부담	정부 전액	전체				
성	남	5 (2.8)	53 (29.6)	75 (41.9)	46 (25.7)	179 (100)	3.360	3	.339
여	0 (0.0)	19 (24.1)	37 (46.8)	23 (29.1)	79 (100)				
전체	5 (1.9)	72 (27.9)	112 (43.4)	69 (26.7)	258 (100)				
학	초등학교	1 (1.3)	19 (25.3)	27 (36.0)	28 (37.3)	75 (100)	9.748	9	.371
	중학교	3 (3.6)	23 (27.7)	41 (49.4)	16 (19.3)	83 (100)			
	고등학교	0 (0.0)	17 (29.3)	27 (46.6)	14 (24.1)	58 (100)			
	진공과	1 (2.4)	13 (31.0)	17 (40.5)	11 (26.2)	42 (100)			
	전체	5 (1.9)	72 (27.9)	112 (43.4)	69 (26.7)	258 (100)			
장	지적장애	1 (0.8)	34 (27.4)	53 (42.7)	36 (29.0)	124 (100)	24.143**	6	.000
	자폐성장애	4 (5.1)	29 (36.7)	37 (46.8)	9 (11.4)	79 (100)			
	뇌성마비	0 (0.0)	9 (16.4)	22 (40.0)	24 (43.6)	55 (100)			
	전체	5 (1.9)	72 (27.9)	112 (43.4)	69 (26.7)	258 (100)			
장	1등급	2 (1.2)	47 (28.7)	68 (41.5)	47 (28.7)	164 (100)	2.037	3	.565
	2등급이하	3 (3.3)	25 (27.2)	42 (45.7)	22 (23.9)	92 (100)			
	전체	5 (2.0)	72 (28.1)	110 (43.0)	69 (27.0)	256 (100)			
장	경도	2 (3.4)	20 (33.9)	21 (35.6)	16 (27.1)	59 (100)	6.972	6	.323
	중등도	2 (3.6)	15 (26.8)	29 (51.8)	10 (17.9)	56 (100)			
	중도	1 (0.8)	33 (27.7)	48 (40.3)	37 (31.1)	119 (100)			
	전체	5 (2.1)	68 (29.1)	98 (41.9)	63 (26.9)	234 (100)			

* $p < .05$, ** $p < .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정부 주도 부담(41.5%), 정부 전액(29.0%), 당사자와 정부 동등 분담(27.4%)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정부 주도 부담(46.8%), 당사자와 정부 동등 분담(3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는 정부 전액 부담(43.6%), 정부 주도 부담(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정부가 주도하되 당사자와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정부 주도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발달장애학생 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평생교육 요구에 대한 구체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수준 차이에 대해 논의한다. 자녀의 장애유형이 자폐성장애이거나 뇌성마비인 경우, 장애등급이 높거나 장애정도가 중도인 경우 부모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폐성장애인 또는 뇌성마비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직업 획득 및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평생교육 또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다(조흥식 등, 2011). 자폐성장애 또는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경우 낮 시간에 가정을 벗어나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평생교육이란 단지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갖는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유용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들은 평생교육 필요 이유에 대해 자녀의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사회 참여를 가장 고려하고 있었다. 발달장애는 지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제한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인지력, 자기통제력 능력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다. 발달장애학생은 학령기에 지역사회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사회 참여 또는 적응을 준비한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들이 학령기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 참여에 가치를 둔 평생교육을 원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취업에 유리한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학령기 교육의 연장선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경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취업을 고려하고 중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여가 및 취미를 평생교육의 이유로 두고 있는 점은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중도 발달장애인은 취업에 불리한 조건에 있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취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돌봄과 보호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도 발달장애인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력을 통한 수익 기대와 그것에 기반한 취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중도 발달장애인을 위

한 복지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취업 개선책과 함께(박은송, 2011), 이와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다.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요구가 나타났는데,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요구는 직업교육, 일상생활교육, 취업 알선 상담, 경제적 지원 등으로 다양하였고, 자폐성장애와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의 요구는 일상생활교육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의 행동 특성 상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감각처리능력의 문제로 인하여 아동이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약하거나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 반복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등 특별한 양육방법이 필요한 행동을 일으킴으로 어머니는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박소정, 송브라이언병, 이상춘, 2013). 뇌성마비인의 경우 운동기능 제한으로 인한 이동기술 및 생활 도구 사용 등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자폐성장애와 뇌성마비 학생의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부모들은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일상생활기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에 따라 부모는 다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장애등급이 높고 장애정도가 중도일수록 일상생활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자녀의 장애등급이 낮고 경도일수록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과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훈련받은 기술로 취업하기 어렵거나, 장애가 심하여 훈련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오미숙, 2005).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도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연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도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적 성공을 위한 보다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도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을 목표로 하는 기초적인 적응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핵심 역량(core competence)’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백종남, 김정미, 김삼섭, 2015).

넷째, 발달장애인 이용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논의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 특수학교를 선호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전공과 학생으로 올라 갈수록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학생이 미래 직업 생활을 대비하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전환교육 체계가 요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조홍식 등, 2011). 발달장애인의 아동·청소년기에는 이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기에는 직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학

령기 이후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애 주기별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발달장애학생의 장애등급이 높고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특수학교와 지역 사회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특수학교 수는 166개교이고, 그 중 발달장애 영역별 학교는 지적장애 112개교, 정서장애(자폐성장애) 7개교, 지체장애 20개교 등 139개교에 달한다.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각 시·도별 분포는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지역별로 모두 분포하고 있으며 적게는 지역당 3개교(제주)에서 23개교(서울)까지 분포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이처럼 각 지역에 특수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발달장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선호도가 높다고 본다. 또한 특수학교가 갖추고 있는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발달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호하는 데는 특수학교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지 기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교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성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행동전문가, 상담사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요구에 대해 논의한다. 발달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 경우 정부와 당사자가 분담하자는 부모의 의견이 많은 반면, 뇌성마비인 경우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정부가 주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뇌성마비 학생 부모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크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구신실, 박재국, 조영석, 2009; 김정민, 최민숙, 2003; 박지연, 유은연, 2004; 어용숙, 2000). 뇌성마비학생 부모들은 성인기 전환에 대한 불안이 크다. 뇌성마비 학생 부모들은 다른 장애아동과 달리 의료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김홍준, 2003). 뇌성마비인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교통수단 이용, 보조기구 사용,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사용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에서 평생교육 수혜 대상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뇌성마비인의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뇌성마비인의 경우 지적장애 동반 여부를 떠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리함이 크고, 경제적 부담까지 당사자에게 주어진다면 이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가중될 것이다. 뇌성마비인이 발달장애인법상 수혜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비

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었다는데 그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편의적으로 표집하여 특수학교 재학 중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발달장애학생의 요구까지 수렴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요구와 비교하거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요구를 세심하게 검토한다면 향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순원, 김운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 구신실, 박재국, 조영석 (2009). 뇌성마비유아 가족지원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2(1), 377-396.
-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아산: 저자.
- 김경열 (2012). 발달장애 아동의 학령기 이후 교육참여에 관한 학부모 심층면담. **발달장애연구**, 16(2), 1-21.
- 김기룡 (2014).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이용 실태 및 요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pp. 13-48). 서울: 장애인부모회.
- 김석진 (2013). '11~'13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와 발전방안. **2013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2013. 12. 27) 자료집**, 1-20.
-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심석순, 김동주, 강민희, 정희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3-2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준, 도명애 (2014). 발달장애학생의 미래 성인기 자립생활을 위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학 연구과제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3), 39-68.
- 김운태, 김성애, 박찬용, 김윤덕, 김은주, 박은영, ... 김병철 (2009). **전북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전북: 전라북도 교육청.
- 김정민, 최민숙 (2003).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실행을 위한 가족의 요구와 지원 상태 분석: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8(2), 85-112.
-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 김기룡 (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 김정효, 이정은 (2008). 한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삶에 관한 어머니들의 보고. **특수교육학연구**, 42(4), 245-276.
- 김홍준 (2003). 전환상담에 대한 지체장애아동 부모의 욕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강대학

- 교 공공정책대학원.
- 박소정, 송브라이언병, 이상춘 (2013). 발달장애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어머니의 근골격계 증상 및 양육부담감과의 관계. **발달장애연구**, 17(3), 47-70.
- 박승희 (2003). 장애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 삶을 위한 부모의 역할. **2003년도 서울시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정신지체인부모 세미나**(pp. 11-25). 서울: 장애인부모회.
- 박승희 (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 박은송 (2011). 중도장애학생의 졸업 후 지역사회 전환에 따른 진로·직업 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2), 159-180.
- 박지연, 유은연 (2004). 장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지원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2), 139-169.
- 박혜주 (2006).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종남 (2011). 발달장애학생 다중지능 측정 문항의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공주: 공주대학교 대학원.
- 백종남 (2015). 발달장애학생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그 영향력 검증.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1), 185-202.
- 백종남, 김정미, 김삼섭 (2015). 발달장애학생 기초작업기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직업기초능력의 도출, 우선순위 및 미래유용성-준비도 매트릭스 분석. **한국지체·중복 건강장애교육학회 2015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6-152.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어용숙 (2000). 뇌성마비아 부모의 부담감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 에이블뉴스 (2015).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제정안 향한 ‘쓴소리’. 2015. 5. 2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0520095230178299#z>. (검색일: 2015. 6. 5).
- 오미숙 (2005). 천안지역 발달장애인 취업실태 및 욕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천안: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오영석, 박원희 (2008). 정신지체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평생교육학연구**, 14(4), 83-101.
-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의 인식 연구: 대학 내 중등교육 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윤점룡, 양중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승현 (2014).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석사학위논문, 공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경원, 이유리, 곽승철 (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 연구**, 26(4), 207-247.

- 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김진우, 김용득, 윤민석 (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최옥순, 김영일 (2009). 지체장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과 졸업 후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1), 1-26.
- 홍승희 (2011). 성인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요구 조사. 석사학위논문. 인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trieved October 18, 2013, from <http://www.cdc.gov/ncbddd/developmentaldisabilities/index.html>
- Cronin, M. E., Patton, J. R., & Wood. S. J. (2007). *Life skills instruction: A practical guide for integrating real-life content into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or who are placed at risk* (2nd ed.). Austin, TX: PRO-ED.

Demands of Parents on Lifelong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pecial Educational School

Baek, Jongnam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for finding out demands of parents on lifelong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60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lected in 6 special schools in C and D districts by a purposeful sampling.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1) Parent's demand level on lifelong education of students with autism and cerebral palsy is more higher in compari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y is more higher in comparison with mild. (2) All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sider reason of need on lifelong education as social participation, however, parents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y consider it as leisure and habit. (3) Parent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demand various types of program, whereas parents of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and autism mostly need daily life practices. Parents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y dem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whereas parents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y demand daily life skills. (4)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 to special school and community educational institutes as a places of a lifelong education, whereas parents of students in over middle school prefer to vocation educational institutes. (5) Parents of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more emphasis on public responsibility than personal responsibility in comparison with parent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r autism. This study may be useful to administrators and providers of lifelong education services for understanding demands of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astly the implication, limitation and suggestion for following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y, lifelong education, special school, parents, demand

논문 접수: 2015. 08. 05 심사 시작: 2015. 08. 12 게재 확정: 2015. 09. 02